



동결도 : 조선 후기의 도화서 회원들이 동결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 및 궁궐 전경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16폭의 궁궐 배치도로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치한 원남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다. 국보 제249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본 페이지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단체 등의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회적 합의안 도출

이희영 의료기술분석팀장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7월 30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9개 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0일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공개 연속토론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앞으로 진행할 사회적 합의 도출의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된 것이다(토론회 프로그램 참고).

일차로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본원칙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였다. 작성된 의견서는 기본원칙, 의학적 판단,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관련, 병원윤리위원회 등 4개 분야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9개 기본원칙 합의안 참고).

7월 27일까지 기본 원칙에 대하여 찬성여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였으며,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후 발간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있었다.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 후, 그간 논란이 되었던 연명치료 중단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각종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7월 2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수 있는 초안이 나왔으니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NECA](#)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

구분	토론 주제	참여자
1차 토론회 (7.10 / 16:00)	개념 및 용어통일	· 발제: 배종면 실장 · 토론자: 진교훈 교수, 손명세 교수, 김철중 기자, 홍영선 교수, 노태현 판사, 이경권 변호사
2차 토론회 (7.17 / 16:00)	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 대상질환, 연명치료 종류· 범위 · 회생가능성 여부 판정의 주제 · 치료중단 결정기준,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 Slippery Slope에 대한 우려	· 발제: 이희영 팀장 · 토론자: 이동익 신부, 최철주 기자, 이상원 교수, 이순남 교수, 김옥주 교수, 윤영호 실장
3차 토론회 (7.24 / 16:00)	의사결정 절차 · 사전의료지시서 · 대리인 문제	· 발제: 류호걸 팀장 · 토론자: 석희태 교수, 이인영 교수, 고윤석 교수, 최준식 교수, 김시영 교수, 안혜리 기자

▶ 9개 기본원칙 합의안

... 기본 원칙

- ❶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 ❷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 ❸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학적 판단

- ❹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관련

- ❺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 ❻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 ❼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 ❽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병원윤리위원회

- ❾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 작성자

고윤석(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법무)
김시영(경희의대 교수, 중앙내과학)	이동익(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김옥주(서울의대 교수, 의료윤리학)	이상원(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김철중(조선일보 기자)	이순남(이화여대 의과대학 전임학장)
노태헌(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인영(홍익대 법대교수)
류호걸(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희영(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제주대 교수, 예방의학)	진교훈(서울대 명예교수, 윤리학)
석희태(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최준식(한국죽음학회 회장)
손명세(연세의대 교수, 의료법)	최철주(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안혜리(중앙일보 기자)	허대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홍영선(아시아태평양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 2009년 7월 27일 현재
찬성 공문을 보내온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비노기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임상중양학회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신장학회